

《백범일지》를 다시 생각한다

최 협

전남대 교수 · 인류학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대선주자들의 책 출간이 붐을 이루고 있다. 어떤 이는 책을 직접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신문에 커다랗게 광고를 내며, 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의 존재를 알린다. 아마도 책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정치인들의 그 바쁜 일정과 정치적 밀담을 나누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언제 그와 같은 책들을 쓸 여유가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출판기념회를 될 수 있는 한 거창하게 치러 세를 과시하며 저술활동을 할 만큼의 지적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그러한 저술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여기저기 발표했던 잡다한 글들을 그럴 듯하게 제목을 붙여 엮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또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남이 쓴 책에 이름만 바꾸어 넣은 경우까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한국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데 생각이 닿으면 우려가 앞선다. 하기야 얼마 전에는 삼십대 중반인 김현철씨의 일종의 자서전 수만권을 한보그룹에서 매입하여 창고에 쌓아 놓았던 사실이 드러난 일이 있었으니 정치인들의 출판 러시는 문제가 될 수도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름지기 참된 정치인이라 한다면 책의 저술과 출판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하려는 충정이 배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명 정치인들은 대체로 회고록을 집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의 정치편력이나 치적이 후대에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데 노력을 쏟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무슨 일을 실제로 행하기 전에 책을 펴내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꼼꼼하고 진솔한 회고록을 남겨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자기를 선전하는 정치인은 많으나 국민에게 역사적 기록을 남겨 교훈을 주는 지도자가 드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쓴 그 수많은 책들은 국민에게 널리 읽히는 책이 되지 못하고 선거가 지난 뒤에는 그저 휴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버려진다. 이를 한국 출판계에서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한낱 낭비적 관행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자리잡고 있다.

책은 곧 글쓴이의 인품을 말해 준다고 한다. 책쓴이의 인품은 글의 내용뿐 아니라 글을 쓰는 정신과 자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백범일지》를 오늘에까지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것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김구 선생께서 그 책을 쓰실 때 간직하셨던 곧은 자세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노작임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람하는 정치인들의 출판물을 접하면서 김구 선생의 글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책 중에 과연 《백범일지》에 견줄 만한 것이 단 한 권이라도 있는 것일까? 정치의 계절을 맞아 곱곰이 생각해 본다. ♦

출판 시평 2 경계해야 할 '박정희 신화' - 박홍규

영웅숭배의 선정적 상업주의 극복해야

저자 초대 3 『한국 현대사 시어사전』 펴낸 김재홍 교수

학대 서평 4 한국유학사 연구의 뚜렷한 이정표 - 금장태
최영성 지음 『한국유학사상사』

이 책을 말한다 5 『노평구 전집』 '종교와 인생' - 이기백

주제가 있는 책읽기 6 조용히 갈망하는 '신화의 귀환' - 김정란
'신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높아져

출판 포커스 7 베스트셀러 목록의 과제 - 이중한

신간읽기 8 이정우 외 『프랑스철학과 우리』 - 허경

얼굴 9 『불행한 조국의 임상노트』 펴낸 한승현 변호사

종합 서평 10 윤영수 · 고종석 · 김소진의 소설집 - 이경호

책갈피 산책 11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를 읽고 - 김종대

여름 기획 12 주머니 속에 넣고 떠나는 나의 작은 책

강혁/김천혜/최수철/이호신/이유미/
정진국/백원담/최윤정/최석태

탐방 16 여행전문서점 '신발끈'

출판화제 18 '학문의 위기' 둘러싼 비판과 자성

학제의 출간 1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전문학전집』 · 외

20 체험으로 읽는 미국인의 세상살이

21 전통부엌과 요리에서 찾는 우리의 멋

22 과학이 쏘아올린 시간의 화살

나의 학문과 책읽기 24 파랑새를 쫓던 소년의 꿈 - 김영한
궁핍을 메우는 나의 독서서평 26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 김종철
정범모 『인간의 자아 실현』 - 이종태

27 황인우 『거시중국사』 - 윤혜영

28 전영표 『출판문화와 잡지 저널리즘』 - 정진석
박창근 『시스템학』 - 김수중

29 프리고진 『학실성의 종말』 - 임경순

이 책 그 사람 30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 펴낸 방희선씨
『아들과 함께 춤을』 펴낸 이승우씨

31 『프리랜서의 세계로 오라』 펴낸 김기태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⑬